

## 믿음이 뭐니? 1

“예수 믿으세요?”



### 마음열기

#### 착각속에 사는 사람들 ^^

- \* **연애하는 남녀** : 결혼만 하면 깨가 쓸어질 줄 안다.
- \* **시어머니** :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엄마를 먼저 챙기는 줄 안다.
- \* **장인 장모** :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 없는 줄 안다.
- \* **여자들** :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관심 있어 따라 오는 줄 안다.
- \* **부모들** :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 \* **아가씨들** :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 \* **육군 병장** : 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 \* **남편** :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 \* **엄마들** : 자기애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 \* **꼬마들** :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 \* **대학생들** : 철 다른 줄 안다. 학교만 졸업하면 앞날이 확~ 필줄 안다.

☞ 위의 내용들 중 동의가 되는 부분이 몇 개나 되시나요?

☞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나눔

1. 교회를 다니는 것 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과 불편함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익	불편함

##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로마서 2:17

17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 로마서 4:1-5

1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4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5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 로마서 2:17은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로마서 4:1-5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유대인(2절)	바울(3절)

▣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행동한 것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나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로마서 4:1-5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 요즘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 하나님의 나를 위해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순전한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 적용과 결단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착각.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 그 사람과 친하다는 착각. 우리는 하나라는 착각. 나만 그렇다는 혹은 나는 아니라는 착각.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착

각.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는 착각. 나는 운이 좋다는 착각.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예수를 믿은 것이다”라고 고백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 속에도 미묘한 오해와 착각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그의 위대한 행위나 업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아브라함처럼 행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큰 착각임을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에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자신을 내어맡겼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앙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이란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일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나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진창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일에 기꺼이 뛰어드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 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일에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